

TPA, 11월 가격 586달러로 고시

10월 톤당 580달러 거래 ... 삼남석유화학은 여전히 분기별 거래

국내 최대의 TPA(Terephthalic Acid) 생산기업인 삼성석유화학이 11월 TPA 가격을 톤당 585달러로 고시했다.

삼성석유화학 관계자는 “11월 BP, Mitsubish Chemical, Mitsui Chemicals, Yangzi Petrochemical이 TPA 가격을 각각 590달러, 580달러, 590달러, 582달러로 발표해 11월 TPA 내수가격을 톤당 586달러로 발표했다”고 밝혔다.

국내 TPA 내수가격은 기존에 화학섬유 생산기업의 매출 및 TPA 원료가격 등을 기준으로 조정해 왔는데, TPA 생산기업들은 TPA 공급시기의 시장상황이 TPA 가격에 반영되지 않아 가격협상이 힘들었다.

또 TPA 내수가격이 국제가격보다 낮아 해외 TPA 생산기업들 및 화학섬유 생산기업으로부터 지속적인 지적을 받아왔는데, SARS와 미국-이라크 전쟁으로 인해 국제시황이 악화됐던 2003년 2/4분기를 제외하고 2002년 2/4분기부터 중국시황이 국내시황보다 좋아 국제가격이 내수가격보다 높게 거래돼 왔다.

삼성석유화학은 새로운 포물러 도입에 대해 “TPA 생산기업 및 화섬기업들의 예측경영이 가능하도록 유도해 생산자와 수요자 상호간의 Win-Win 전략을 구사하기 위한 결정이었다”고 밝혔다. 반면, 다른 생산기업 관계자는 “삼성석유화학의 고시가격 체계가 국제시황이 좋은 시점에서 내수가격이 결정된다는 점에 화학섬유 생산기업들의 강한 불만이 있었으나 국제시황과 관계없이 삼성석유화학이 현재의 포물러를 지키겠다는 의지를 표명해 7월부터 소급해 일부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그러나 다른 TPA 생산기업 관계자는 “삼성석유화학의 새로운 포물러 적용에 대해 코오롱이 삼성석유화학과의 거래관계를 정리하고 KP케미칼과의 거래를 시작하는 점 등을 미루어볼 때 가격 고시제 도입이 수요기업들에게 쉽게 받아들여진 것은 아니다”고 전했다.

국내 TPA 생산기업들은 현재 삼성석유화학의 고시가격체계를 수용한 것은 아니나 삼성석유화학이 발표한 가격과 비슷한 수준에서 내수가격이 결정되고 있으며, 내수시장의 30%를 점유하고 있는 삼남석유화학 관계자 역시 “국제시황에 따른 내수가격 적용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내 TPA 생산기업들은 삼성석유화학을 제외한 5사가 모두 관계사 구조를 가지고 있어 국제시황에 따른 가격결정제도 도입이 쉽지 않을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003년 전반기 삼남석유화학의 QTA(Qualified Terephthalic Acid) 40만톤 증설로 국내시장이 혼탁해질 것이라는 삼성석유화학과의 태광산업, 효성 등이 예상했으나 삼남석유화학은 QTA 신증설분의 90% 이상을 중국시장에 수출하고 있어 2003년 국내시장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

2005-2006년까지 중국의 TPA 생산기업의 신규증설로 국내 TPA 생산기업들의 피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TPA 생산기업 관계자들은 하나같이 중국의 TPA 신규 증설계획에 따른 여파는 적어도 2010년이 지나야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으며, 한 TPA 생산기업 관계자는 “BP의 Zhunhai 플랜트 가동에 무려 7년의 기간이 소요된 것을 감안할 때 중국의 신규증설 계획 중 30% 가량만이 실제로 증설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삼성석유화학의 신증설계획에 대해 “현재 TPA 신증설을 검토하고 있으나 결정된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삼성석유화학은 10월 TPA 가격이 중국가격이 당초 고시된 가격보다 톤당 5-10달러 낮은 580달러에 거래돼 내수가격도 580달러 전후에서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동민 조사연구원>

<Chemical Journal 2003/11/25>